



2025년 3월 9일(제1237호) 시순 제1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악마의 유혹”

바로 사도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선을 바라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오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겠지요.

사랑과 은총, 기도와 겸손, 봉헌, 하느님 말씀. 우리는 이미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악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악마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악마를 돕는 꼴이 되고 맙니다. 성경 속 악마는 결코 비유나 극적인 연출을 위해 꾸며낸 존재가 아닙니다. 악마는 실재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악마는 ‘나 악마요’ 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뿔이 달리고 온몸이 빨간 악마, 사람 안에 들어가 그를 기이하게 만드는 악마의 소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개 악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중세의 화가는 오늘 복음을 그리며 악마를 ‘수도복을 입고 목주를 손에 쥔 수도자’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처럼 악마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아름답게 자신을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 살면서도, 그것이 악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내 집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

기에 악마와 싸우면 반드시 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몫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야고보서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에게 복종하십시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오로 사도는 악마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 믿음과 하느님의 말씀, 구원의 희망으로 무장하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악마와 말을 섞지 않으시고, 그저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만을 되뇌시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믿음, 하느님의 말씀,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마가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언젠가 피정 때, 기도하던 도중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차라리 저에게 권세와 부를 주십시오. 저들보다 제가 그것들을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것들로 나를 참되게 따를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너는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저는 부와 권세, 그밖에 다양한 것들에 관한 유혹이 들이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도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말씀 한 구절을 품고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장준교(로마노) 신부  
여성대(공군 제16진주비행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신명 26,4-10
- 회    탑    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제 2 독 시    로마 10,8-13
- 복음 권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            음    루카 4,1-13
- 영    성    제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2.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친언니와 올케에게 보낸 편지

한편 생각으로는 아주 기뻐지만, 정신없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포졸들이 재촉하니, 아, 슬프디 슬픈 울음소리가 천지에 진동하는구나! 이제 홀로 계신 시어머님과 형제 친구와 고향과 영원한 이별이로구나!

혈육 간의 정이 아직 남아 한 줄 눈물로 슬피 이별하고 말없이 돌아서니, 원하는 바 오로지 복된 죽음이라!

처음에 잡아다가 창고에 가두었다가 반나절이 지난 후에 장관청이란 곳으로 옮기니, 그 곳에 시어머니(신희), 시숙모(이육희), 시동생(유문석, 요한), 시사촌 동생(유중성, 마태오)이 계시는구나!

서로 바라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그럭저럭 밤이 되니, 때는 구월 보름이구나! <다음 주에 계속>

**『동장부부 순교지 복자 이순이 루갈디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상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당신을 따라**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하필 이런 길을.

그럼 어떤 길을 생각했는데?

곱고 밝은 길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따라,  
그런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곱고 밝은 길은 아니지만,  
이게 당신의 길이라면,  
그 뒤를 따라  
이 길을 가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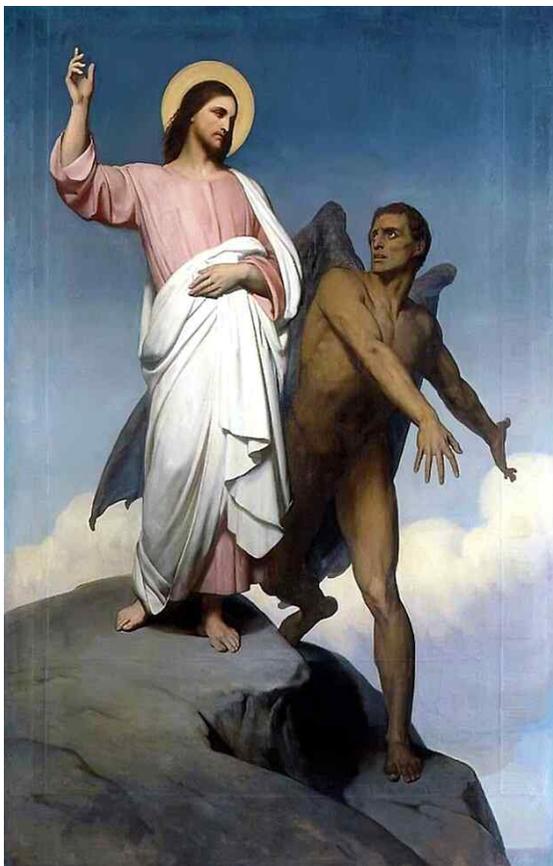
당신을 따라.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리 세페르(Ary Scheffer, 1795-1858), 1854년 作 캔버스 위 유화, 75.5×55.0cm / 일본 국립 미술관, 호주

세페르는 네덜란드 태생이지만, 부친을 따라 화가가 된 후 파리에 와서 활동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하였고, 이 당시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특히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였다.

이 그림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도하는 악마를 그린 것이다.

그러지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힘순간에 시꺼의 모든 나라를 보여 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기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루카 4,5-8)

오늘 복음 말씀의 이 부분을 묘사한 장면으로, 뒷배경에 보면 구름보다도 높은 하늘이 보이고 나무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황량한 높은 언덕 같은 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옆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이 보이는 악마가 있다.

밝게 빛나는 흰색의 겹옷과 붉은색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위엄에 가득 찬 표정과 모습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계시며,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림자처럼 어둠에 갇힌 것 같은 모습의 악마는 아래쪽을 가리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위엄이 서린 예수님의 손이 향하는 천상의 것을 택할지, 어둠 속 악마의 손이 향하는 세속적인 것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시순 제1주일: 쌍용 유농회 신부

◆ 교구장 동정

- 진군(5군수지원여단) 성당 사목방문

때: 3월 9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3월 10일(월)~11일(화),

천주교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2025년 기획피정

때·곳: 3월 14일(금)~16일(일), 배론성지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